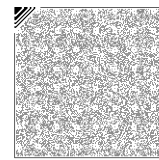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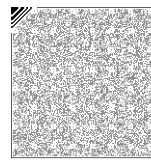




2011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활동 리뷰

새보람

SAEBORAM



장애인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해!!

2008년 4월 11일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수많은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장애인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갑시다.

내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기 시·도협회장단' 출범

5협회 '선임', 11협회 '연임'...임명장 수여 완료

9일 워크숍 가져...김정록 회장 "쉽 없는 혁신" 당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기 시·도협회장'들이 지난 11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후 김정록 중앙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왼쪽 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이끌 어갈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의 '제8기 시·도협회장단'이 지난 11월 29일(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장애인 권리수호 및 복지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장협은 '제7기 시·도협회장'의 임기(2011년 11월 30일)가 완료되어가는 지난 10월부터 '제8기 시·도협회장 모집'에 나섰다. 특히 역량 있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동아일보를 비롯한 각종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선임 결과,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5협회가 새로운 협회장을 맞았고, 나머지 11곳은 기존의 협회장들이 연임됐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추송근 협회장에서 박창영 신임 협회장이,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이동석에서 정임숙,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표창대에서 김기호,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는 김평호에서 박경철,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는 김준식 협회장에서 이상식 신임 협회장으로 바뀌었다.

반면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이규달) ▲부산광역시지

체장애인협회(김광표)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김창환)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이재홍)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윤석연)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김흥수)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변창수)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이건휘)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김창수)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재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형중)는 기존 협회장이 연임됐다.

이날 협회장들은 "장애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장협은 '제8기 시·도협회장'들과 그들을 보좌하는 사무처장들이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및 지장협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제8기 시·도협회장 및 사무처장 워크숍」을 12월 9일(금)부터 10일(토)까지 대구 동구에 위치한 GS프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제8기 시·도협회장'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역협회의 현안 문제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김정록 중앙회장은 '제8

기 시·도협회장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협회장들은 직원들을 이끌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장애인복지 발전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수많은 도전과 책임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은 물론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록 중앙회장은 시·도협회장들에게 '쉽 없이 혁신할 것', '선두에 설 것', '약속을 지킬 것', '솔선수범할 것', '과거로부터 배우되, 안주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발행인 칼럼 / 送年辭

지장협의 가능성을 확인한 2011년



존경하는 새보람 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지체장애인 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신묘년(辛卯年)의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 해주신 전국의 장애인지도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새보람 독자를 비롯한 모든 장애인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올해도 국내·외 정세만큼이나 장애계도 참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보람찬 일도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고, 어렵고 첨예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을 때, 그 힘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며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게도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新기록을 수립한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등을 성공리에 개최했음은 물론, 국내 최대 장애인 당사자단체인 지장협의 전국 임직원 및 회원 간의 상호 화합을 위한 '2011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2011 전국장애인단체활동가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전국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장애인인권위원회'를 전국적으로 발족했고, 국내 장애인단체 중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전문요양병원 '새보람요양병원'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오랜 준비 끝에 개원하게 됐으며,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협약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인도에서 열린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준비를 위한 지역 워크숍'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河北省殘疾人聯合會(하북성잔질인연합회)와 베트남장애인연합회 등과 교류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를 이끌어 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기 시·도협회장'이 11월 말 임명, 우리의 이상인 장애인 누구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미래의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지난 2011년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못 다한 아쉬움과

무거운 짐은 떠오르는 해와 함께 물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합시다. 지난 1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거두어 들인 값진 성과들은 '임진년(壬辰年)' 새해의 새로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합시다. 안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추억의 일기장에 간직하면서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시다.

다가오는 2012년, 흑룡의 힘찬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머뭇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15

중앙회장 **김정록**

◆ 김정록 중앙회장 동정 (11월15일~12월 15일) ◆

월/일	내 용(장소)	월/일	내 용(장소)
11/16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 범국민협의회 창립대회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12/04	호치민장애인작업장 방문 (베트남 호치민)
11/26	장애인 맞선 이벤트 '솔로탈출 119' (이룸센터 누리홀)	12/05	베트남 주재 한국기업 공단 방문 (베트남 하노이)
11/29	제8기 시·도협회장 임명장 수여식 (이룸센터 2층 회의실)	12/06	스포츠토토(주) 윤덕기 부회장 면담 (베트남 하노이)
11/29	이룸센터 기독교 신우회 예배 참석 (이룸센터 누리홀)	12/09 ~ 10	제8기 시·도협회장 및 사무처장 워크숍 (대구 GS프라자 호텔)
12/02	베트남장애인연합회 방문 (베트남 호치민)	12/13	총·대선 장애인공약 개발연대 공약설명회 (이룸센터 대회의실)
12/03	베트남정부 주관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호치민 Suoi Tien공원)	12/15	편의센터 전문가 워크숍 특강 (충북 수안보상록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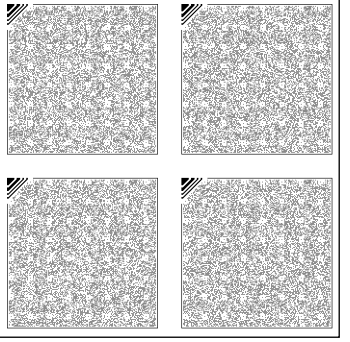


김정록 중앙회장이 지난 11월 29일(화) 열린 '이룸센터 기독교신우회 열린예배'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베트남장애인연합회의 초청으로 지난 12월 3일(토) 호치민 Suoi Tien 공원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정록 중앙회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 개최

김태호 총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11월 23일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1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에서 김종인 교수의 강의 모습.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11월 23일(수)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북부장애

인종합복지관에서 '201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장협 산하 시설 소속 6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가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실무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은 물론, 상호교류를 통해 시설별 운영발전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정책방향', 인덕회계법인 김정일 회계사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달성군장애인자립작업장 우승운 원장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인증(보건복지부)및 신청에 따른 실무' 등이 실시됐다.

한편 지장협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정책, 사회의 전문화, 복잡한 경쟁,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에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실무

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무기로 새로운 아이템 및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교육에 참가한 실무자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비롯한 행정력 제고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고착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11년도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가한 전국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이하 지도자대회)가 이튿날인 29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제19회 경북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협회장 장재권, 이하 경북협회)가 지난 11월 28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포항문화예술회관과 필로소호텔에서 개최한 '제19회 경북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이하 대회)'가 이튿날인 29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나눔, 소통, 화합”을 부제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경북협회 산하 23개 시·군 지체장애인지도자들 천오백여명이 참석해 역량 및 자질을 도모하고 상호 화합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대회 개최식에서는 이주석 경북도행정부지사, 이상호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박승호 포항시장, 이병석 국회의원, 이상구 포항시의회의장, 구자영SK이노베이션 사장, 조봉래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1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영·호남 교류를 위해 대구, 부산, 경남, 전북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회장 및 지도자 65명도 함께했다.

장재권 경북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역에서 회원들의 따뜻한 벗으로, 동지로 함께 하며 장애인복지발전에 힘써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박수를 보낸다”며 “정직한 지도자,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더욱 힘차게 정진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경북협회가 추진 중인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 추진경과에 대한 브리핑이 실시됐고,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가 복지관 건립 기금 2억, 3억5천만원을 경북협회 측에 각각 전달했다.

또한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사장과 조봉래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이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 건립 기여에 대한 공로로,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이 장애인독도문화탐방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편의센터, ‘2011년 전문가 워크숍’ 실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수안보상록호텔에서 「2011년도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이하 지도자대회)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했다.

중앙센터 및 전국 16개 광역센터, 기초센터 직원들을 포함한

250여명이 참가한 워크숍에서는 센터 직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증진법 개론’,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 해설’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 ‘2012년 사업계획’ 발표, 센터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

됐다.

한편 김정록 센터장은 특강을 통해 “센터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비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닌,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들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차대한 업무”라고 강조하며 이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회장 윤석연)는 2011년 11월 19일(토) 전천후게이트볼 경기장에서 ‘2011년 추계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국회의원, 박순철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성채모 대전시 게이트볼연합회장, 박정희 대전시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부회장, (사)대전시지체장애인지도자

‘대전광역시장애인게이트볼대회’ 열려

회 박태규 서구지회장, 남성우 유성구지회장, 김채린 중구지회장, 대전장애인게이트볼 연맹 박찬오 이사를 비롯한 대전시 게이트볼 12개팀 선수들이 참석했다.

또한 기존의 대전시 5개구의 연합 동호회로 운영돼 오던 장애인게이트볼은 친목위주에서 전문적 장애인 생활체육으로의

육성을 위해 2011년 『대전광역시장애인게이트볼 연맹(회장 윤석연)』이 발족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12개팀이 참석하여 4강에는 중구1팀, 서구1팀, 동구1팀, 유성구1팀이 올라 기량을 펼쳤고, 우승에는 유성, 2위에는 서구, 3위는 동구 팀이 차지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가 개최한 '제19회 경북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행사 모습.

안희정 도지사와 간담회 가져

복지발전 논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 건의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진희, 이하 충남협회)를 비롯한 충남도내 18개 장애인단체장들이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12월 9일(수) 도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내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 내년 복지 시책 추진 방향을 보고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방안 논의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장들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장애인단체장들과의 간담회 모습.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장애인과 단체의 의사소통, 장애 유형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정의는 ‘강한 자를 바르게 하고,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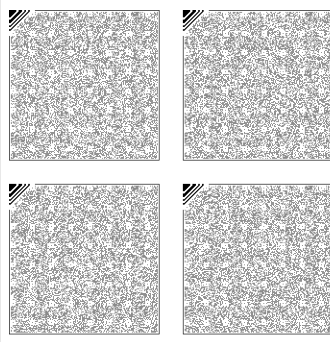
한 자는 힘을 주는 것’이며, 더 좋은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며 “장애인 복지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한 “장애인 복지

와 장애인 현장에 대한 최고 전문가가는 바로 장애인단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도와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간의 교류와 소통 확대를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올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근거 마련 ▲사랑의 인솔 사업 확대

소리로 읽는 새보람



추진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증대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개인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제2차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문화해설사’ 호응 높아

현재 5명 활동 중...개별여행도 서비스 가능

경북협회 경주시지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산하 경주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센터장 이상인, 이하 센터)가 지난 10월부터 경주를 여행하는 장애인관광객들에게 문화해설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유적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을 지난 7월부터 2달간 실시, 현재 5명의 장애인문화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문화해설사의 도움을 받은 한 장애인관광객은 “장애인 당사자가 문화해설사로 있어 더 편안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문화해설사 김동한(지



경주의 관광지를 찾은 장애인관광객들이 경주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 소속 장애인문화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체3급)씨는 “경주를 방문한 장애인관광객들에게 경주의 이곳저곳을 소개하는 일이 아주 즐겁고,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문화해설사를 통해 즐거운 경주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앞으로 경주를 방문하는 단체여행객 뿐 만 아니라 개별여행을 오는 장애인관광

객들에게도 문화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해설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들은 사전에 경주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 홈페이지(<http://www.jangtour.org>)나, 대표전화(054-745-2255)로 예약을 하면 누구나 해설사와 동행하여 경주의 유적지해설을 받아볼 수 있다.

지역장애인 위한 ‘벼룩시장’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마련한 ‘벼룩시장’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중, 이하 제주협회) 여성부는 지난 12월 10일(목) 탐라장애인복지관 다목적실 2층에서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벼룩시장’을 열었다.

제주협회 여성부회원과 가족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중고물품 등을 내놓아 벼룩시장을 운영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실시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는 지난 12월 1일(목) 오전 11시 김천시 남면 농협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오분 자두꽃봉사회장, 손태옥 남면장, 박길하 남면 이장협의 회장, 장윤자 남면 생활개선회장

김천시지회장과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단체나 개인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한 후원금에서 배추 500포기와 양념을 구입해 열리게 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담근 김치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김천시 내 장애인 100가구에 가가호호 방문해 ‘사랑의 김치’를 전달했다.

인사 동정

• 임명	강인철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前 중앙회 기획조정실장)
	오민석	중앙회 기획조정실장(복지사업국장 겸직)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31호 2011년 12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성명서

법 개정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하라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동부(한국장애인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 고용 30%, 그 중 중증장애인 과반수 이상)을 지정하여 시설자금을 지원·융자해 주고 있다.

그런데 20년간 개발한 표준사업장 145개소 중 95개소만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다. 95개소 역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노동능력 저하로 경쟁력 약화, 생산품의 단일제품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생산제품의 경쟁력 약화, 생산물품의 판로개척 미비 등이다.

그러나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5,000명이나 고용하고 있고, 최소한 최저 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어 장애인에게는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는 소중한 일터이다. 관련 부서는 고용노동부이다.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가 직접 장애인직업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우선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조달청이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에서의 우선구매가 총 구매액의 1%라면 연간 8,000억 원 정도(조달청 4,000억 원)가 되어야 하나, 사실은 그 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그것도 합산액의 추정치일 뿐, 실상은 구매액의 법적 할당에 대한 관리 시스템조차 없다. 관련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비록 장애인직업시설들은 최저임금 의무 적용의 제외로 인하여 불과 10~30만원 정도의 급여밖에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직업시설은 일반 경쟁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정선 국회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표준사업장도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법안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표준사업장은 개인영리업체이므로 인센티브를 주면 개인의 영리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 장애인 고용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고용하는 장애인시설보다 낮다는 점, 현재의 장애인직업시설의 품목과 겹칠 경우 장애인직업시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이 법안의 통과에 태클을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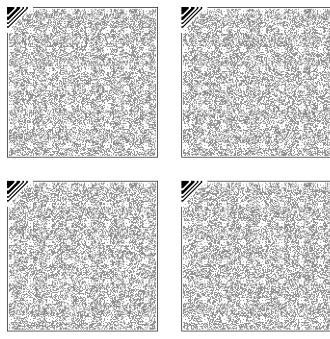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의 세 가지 반대는 너무나 큰 기우이다. 첫째 장애인직업시설 제품은 매출은 클지 모르나 수익성이 없어 그 품목은 선택할 수가 없다. 쓰레기봉투, 복사용지 등 일부 가공으로 받는 수익으로는 급여를 제대로 지불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직업시설들도 불과 몇십만원도 급여를 주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기업주의 영리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임금조차 주기 어려워하는 자에게 이익을 혼자 가져갈까 염려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영리를

보장하지 못하여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피해가 장애인의 인생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다. 장애인 고용율이 직업시설보다 낮다는 것은 어차피 장애인직업시설과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가 관여할 일도 아니거니와, 실제로는 6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조차도 모르는 말이다.

국회 환노위원들은 그러한 부처 간의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휘둘려져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장애인 고용율을 50% 이상인 경우에 우선구매를 허용하도록 한다거나, 사회적기업의 기준인 이익금의 30% 이상을 재투자하거나 직원 복리에 사용한다거나, 장애인직업시설 우선구매 품목 외의 제품으로 한다고 수정하여 환노위원장 안으로 수정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소리로 읽는 새보람



라도 이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이 법이 폐기되어 제대로 급여를 받는 그나마의 장애인을 절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실업자가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며, 기초생활수급비를 포기하고 장애를 딛고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1년 11월 22일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정록)

‘제6회 아산시장애청소년체육대회’ 성료



‘제6회 아산시장애청소년체육대회’ 참가 학생들의 기념촬영 모습.)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제6회 아산시장애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11월 24일(목)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위치한 아산 시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아산시중등특수교육연구회(회장 위원주)와 아산장복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

에는 아산지역 중·고등학교 10개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 80여명과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총 18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응원과 함께 다채로운 경기를 펼쳤다.

경기진행은 10개교를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구성, 지네발 릴레이경주와 럭비공 굴리기, 집단농구, 응원전, 씨름, 훌라후프 돌리기, 런닝맨(색종이떼기), 농구, 장애물계주, 줄다리기 총 10

종을 진행했다.

대회 결과 우승은 온양중학교, 온양여자중학교, 용화중학교, 설화중학교, 둔포고등학교, 온양고등학교로 구성된 ‘청팀’이 차지했다.

이밖에 페어플레이상은 온양중학교 김영훈 군과 온양용화고등학교 김진주 양에게 돌아갔고, 어머니상은 온양용화고등학교 김명주 학생의 모(母) 박은희 씨, 온양용화중학교 김은성 학생의 부(夫) 박승수 씨가 각각 수상했다.

사회적기업 쿠키트리 ‘신제품 출시’

우리쌀 사용...크리스마스 홍보 돌입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용인시 1호 사회적기업인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쿠키트리는 ‘2012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우리쌀’을 사용한 케이크, 카스테라, 쿠키를 오랜 연구 끝에 지난 11월 완료, 자체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우리쌀을 주 원료로 하는 생크림케이크와 무스케익 3종을 개발완료하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홍보 이벤트 판매에 들어갔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5일(월)~31일(토)까지 3주간이며 기존 우리밀쿠키세트도 할인 판매하고 제품에 행운의 숫자를 부착해 2012년 1월1일(일)~3일(화)까지 매일 5명을 추첨해 쿠키선물

세트 증정행사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정의철 쿠키트리 대표는 “현재 쿠키트리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ISO9001 인증완료 등 끝없는 노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모델이 되도록 모든 직원들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여야, 12월 임시국회 협상 ‘난항’

15일 본회의 무산... ‘준예산 사태’ 우려

여야의 12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서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과 복지예산 증액 등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쟁점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기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번 주 중순에는 예산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한 달 가까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운석 의원은 “이번 주 초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재가동해야 연내 예산처리를 마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계수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심사를



여야의 12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연내 예산안 처리의 어려움은 물론 '준예산 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마치려면 7~8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심야협상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우선 임시국회를 열고 민주당의 8가지 등원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등원 합의에 앞서 일괄타

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미디어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복지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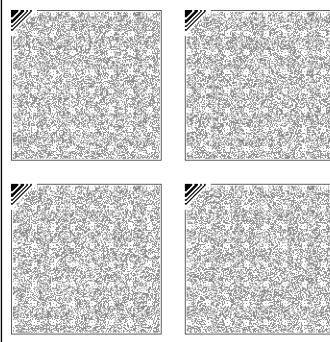
다만, 여야의 물밑접촉 과정

에서 양측의 이견이 다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쟁점이 거의 풀리고 있다”며 “남은 쟁점은 디도스 공격 관련 본회의 현안질 의와 ISD 폐지 결의문 채택 정도”라며 “한나라당이 재협상 촉구까지는 수용하겠지만 폐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소리로 읽는 새보람



2조원 증액과 중앙정부의 무상 급식 지원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타결을 봤다”며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피해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정부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여야 정치권이 모두 국민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 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처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결위에 전달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쪽지가 1천700개가 넘어 이번에는 아예 쪽지를 반영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를 모두 반영하지 않으면 야당이 답답해서라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한정자산자 삭제’ 법 개정안 발의

박은수 의원, 8개 법률 용어 일괄 정리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2월 9일(금)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총 8개 법에 산재돼 있는 금치산자·한정자산자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 3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다”며 “이처럼 종전의 한정자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해 이를 일괄 정비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

를 전했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면허 자격제한 요건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에

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한정자산자를 삭제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긴급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결격사유,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상담원 등의 자격제한 요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자산자를 삭제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사회복지인 대우 받는 시대 온다”

李대통령, 사회복지종사자 초청 오찬서 밝혀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12월 1일(목)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우리 사회가 여러분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이런 좋은 일을 오래 할수록 인정받고 대우 받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 스스로 긍지를 갖고 자신있게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의 한 사회복지사가 29살짜리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려고

사회복지사가 됐다는 사연과 함께 발달장애 아동은 장애등급을 높게 받을 수 없다고 밝히자 “저런 분을 평가위원회에 위촉을 좀 시켜달라”고 즉석에서 임채민 보건복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자존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우 개선에 관심을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밥 굶기고, 성추행...시설 인권침해 심각

복지부,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성범죄, 시설종사자의 폭행, 수치심 유발 등 다양해

성범죄는 물론 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2월 9일(금)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10월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0개 장애인시설 중 155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장애인시설 중에서는 시설 이용



충북 노인식원의 김장통에 우글거리는 구더기들. 이 영상을 본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애인간의 성추행 6건과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손바닥 때리기, 밥 굶기기 등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

행(3건), 학대(2건), 체벌(7건) 등의 의심사례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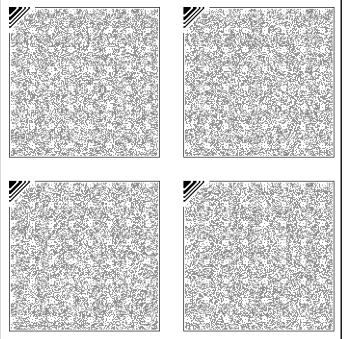
특히 남성장애인의 목욕과 옷 갈아입히는 업무를 여성종사자

나 봉사자가 수행하도록 해, 장애인 당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도 2건이나 발생했다. 구더기가 있는 김치 독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등 식자재 위생관리가 부적합한 사례는 5건이 발견됐다.

이같은 인권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시·도에서는 형사고발(4건)과 함께 시설폐쇄(미신고시설 3건 폐쇄완료 등 14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성추행 및 폭력 등의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을 분리조치함과 동시에 성상담 전문가의 심층 상담조사(6건)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소리로 읽는 새보람



주요 내용은 ▲시설 내부 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6개 시·도) 설치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이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가 10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관련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시설 장애인을 위한 인권수첩 제작, 장애인·보호자 주기적 교육 실시,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에이블뉴스〉

‘순천판 도가니 사건’ 10년 구형

‘순천판 도가니’란 이름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약방 주인의 자매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검찰청 순천지청은 12월 15일 수년 동안 이웃집 자매를 번갈아 가며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자매를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치 않고 A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불우이웃과 장애인을 도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자상

한 사회 사업가로 주위의 칭송을 받아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두 얼굴의 한약방 주인’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한약방 성추행 사건의 모든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 형사중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1호 판사 탄생 눈앞

최영씨, 수료 앞두고 법관임용 신청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31.사법연수원 41기)씨가 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법관임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시험성적을 합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던 최영 씨.

판결을 내리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무리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많다.

법원 관계자는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산한 수료성적은 현재 41기 연수생 1천명 가운데 상위 40위권대에 올라 있다.

에세이 작성과 적성검사, 면접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성적 상으로는 판사 임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관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지만, 연수원에서 기록을 검토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관 직무수행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3때인 1998년 점자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2005년 책을 읽을 수 없는 3급 시각장애인이 된 최씨(현재 시각장애 1급)는 5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다.

자막 100%,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앞으로 장애인이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이 100%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73차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은 그동안 방송사업자

가 일반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을 넣어 송출하면 ‘전용 수신기’를 통해 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자막 제공은 97%, 수화 및 화면해설은 6~7% 뿐이라 장애인들에게 ‘방송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방송사업자의 자막과 수화, 화면해설 제공

이 의무화함에 따라 사업자별 편성비율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 사용사업자는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등 장애인방송을 제공해야 되며,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상파의 70%, 채널사용사업자(PP)는 50%를 지켜야 한다.

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선정발표

1호 진정 ‘장애 이유로 승진임용 배제’ 포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을 선정했다고 12월 15일(목) 밝혔다. 10대 사건은 지난 10년

간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시정 사건 가운데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건들이 뽑혔다.

10대 사건에는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비(非)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등이 포함됐다.

◇장애, 청소년, 성별, 비정규직 등 다양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10대 차별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승진 임용 배제’,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할인 배제’,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등이다.

성별 관련 진정 사건으로는 ‘서울 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와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가 선정됐다.

피부색이나 출신국가 관련 진정 사건으로는 ‘크레파스 등 색 짙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과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 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이 뽑혔다.

이 외에도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 ▲시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등이 선정됐다.

◇인권위 제1호 진정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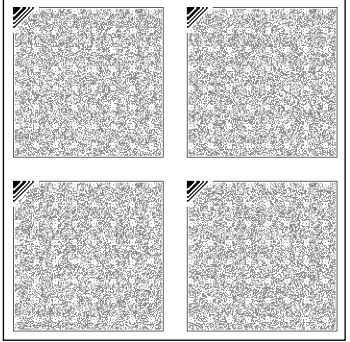
인권위의 10대 차별시정 사건은 사회에 다양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위 제1호 진정이자 차별사건의 36%를 차지하는 장애차별과 관련한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는 조사 영역에서의 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제한 등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는 당시 16세 청소년의 인권감수성과 적극적 노력 덕분에 학생증 외에 청소년증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

소리로 읽는 새보람



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여성이라는 복합 차별에 관한 진정이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성별에 따른 노동 역할 구분에 일침을 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 선정 기준은 우리사회 반차별 감수성 향상 기여도, 차별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 정도, 사건 접수와 권고 당시 사회적 관심 정도 등이었다.

인권위 김영혜 상임위원(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이 선정위원장을 맡았다. 김덕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장석춘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다.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개소



7일 열린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12월 7일(수) 강원도교육청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센터에는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이 배치돼 17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와 4개의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교사연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설모니터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조규현 장학관은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 무엇인지 찾아 해결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정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표 시 장애인에게 교통·이동권 의무 제공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중앙장애인위원장)이 지난 12월 6일(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8조 부재자 신고,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5조 선거공보, 제149조 장애인생활시설안의 기표소 등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많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선언적 권고 조항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지하, 지상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거나 투표를 포기하

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권고조항들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과 장애인이 투표소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장애인들이 투표소까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소를 1층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선거공보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제작과 선거방송 시 자막·수화 방송을 의무화하도록 명시 돼 있다.

이정선 의원은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251만명이고, 장애인 가구 원 수는 700만명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적 의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장애인의 참정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국내 30대 대기업 ‘장애인고용 외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발표

계열사 162곳 중 33곳 ‘제로’, 1%도 13곳

SK와 현대차, LG, 한화 등 대기업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이중 일부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4곳 중 3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했고 10곳 중 4곳은 고용률이 1.3%에 미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2천312곳의 명단을 12월 15일(목)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연 2회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 2천312곳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중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

업 2.3%)의 60% 선인 1.3%에 미달하는 기업들이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만1천195개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에 못 미친 업체는 전체의 절반인 5천611개였다. 이 가운데 의무고용률이 1.3%를 밑돈 업체는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2천924개 기업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이들 기업에 명단 공표계획을 알리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집중 이행지도를 한 결과 고용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은 2천312곳의 명단을 최종 공표대상으로 정했다.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592곳 가운데 4곳 중 3곳 꼴인 442곳이 의무고용률 2.3%를 위반했고, 10곳 중 4곳 꼴인 232곳은

고용률이 1.3%도 밑돌아 이번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 발표 대상에 들어갔다.

기업집단별로는 현대차(15개)와 SK(15개) 계열사가 가장 많았고, LG(12개), 한화(12개), 동부(11개), GS(9개), CJ(9개), 롯데(8개), KT(7개), 포스코(7개), 한진(6개), 효성(6개), 현대(5개) 등도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4개), SK(3개), LG(3개), 현대차(2개) 일부 계열사 중에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계열사 중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은 호텔신라와 제일기획 등 4곳이었고, 에스오일과 STX 계열사는 한 곳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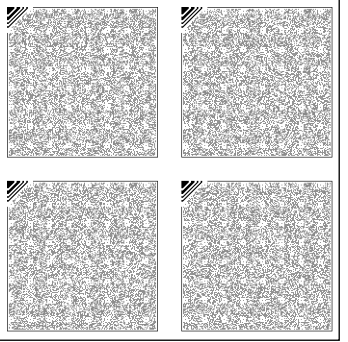
한편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2천367곳이 채용한 장애인은 12만9천447명으로 2.33%의 고용률을 보여 2010년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 고용률은 국가 및 자치단체 중 공무원은 2.53%, 비공무원은 2.84%였고 공공기관은 2.54%, 민간기관은 2.26%를 기록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서 부문별 의무고용률은 공무원(3.0%), 비공무원(2.3%), 공공기관(3%), 기타공공기관(2.3%), 민간기업(2.3%)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100명 이상 민

소리로 읽는 새보람



간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에 이어 21일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곳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재필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들에게 기업 취업문턱은 여전히 높다”면서 “명단 공표와 상관없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열린 고용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민간부문)

(단위: 개소)

규모	대상기업	의무이행	의무 미이행		
			계	1.3% 미만	1.3% 이상
계	11,195	5,584	5,611	2,924	2,687
100~299명	8,390	4,572	3,818	1,881	1,937
300~499명	1,318	536	782	420	362
500~999명	894	317	577	339	238
1,000명 이상	593	159	434	284	150
30대 기업집단	592	150	442	232	210

* '11.10.5.일 명단 공표 사전예고 2,924개소

복지부 · 개발원 · KBS ‘MOU’ 체결



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부, KBS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장애인인식개선사업 공동 추진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KBS(한국방송)는 지난 12월 13일(화) KBS 본관 회의실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공동추진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향후 중증장애인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생산물 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 및 업무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영현 국장, KBS 시청자권익보호국 양원석 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수당 확대 실시해야”

장애인 10명 중 4명이 향후 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중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2월 15일(목) 2011년 사회조사(복지 · 사회참여 ·

문화와 여가 · 소득과소비 · 노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약 1만7,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41.3%가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수당의 지급’을 꼽았다. 이밖에 ‘의료비 지원’은 16%,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답한 장애인은 10.6%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 사회조사는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해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의무고용률 2.5%로 상향



지난 9월 장애인표조사업장 (주)씨피엘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이재필 장관이 장애인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5%로 늘리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들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필, 이하 노동부)는 14일 서울고용센터에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상 · 하반기 고용의무 이

행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연 2회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산하고자 대기업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생산품의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협의하고 경영컨설팅 및 홍보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출처-에이블뉴스〉

원더걸스, 평창스페셜올림픽 위해 댄다!

14일 홍보대사로 위촉...“최선 다할 것”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홍보대사 위촉식. 홍보대사로 위촉된 여성그룹 원더걸스가 자신들이 응원할 티셔츠를 입은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가 ‘홍보대사’로 댄다. 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13년 평창스페셜올림픽’의 원더걸스는 12월 14일(수) 오후 2시 위촉 행사에서 “이번 평창 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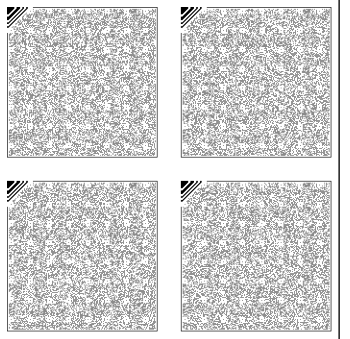
스페셜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또 하나의 올림픽 축제인 만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멤버 모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더걸스의 홍보대사 수락은 지난 7월 아테네에서 열린 2011 하계 스페셜올림픽 폐막 공연에 참석한 인연에서이다. 이날 원더걸스는 “지난 7월 아테네에서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더걸스 멤버 5명은 중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케냐 등을 한 나라씩 맡아 선수단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에는 중국, 예은-캐나다, 유빈-독일,

소리로 읽는 새보람



소희-뉴질랜드, 마지막으로 헤림은 케냐를 각각 응원하고 후원할 국가로 선정했다.

나경원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원더걸스의 홍보 활동으로 한국에 스페셜 올림픽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 개최로 장애인들이 살기 더 행복한 사회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올라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스페셜올림픽은 메달 경쟁보다는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둔 국제 스포츠 이벤트다. 평창 스페셜 올림픽은 120개국에서 3천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 12일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열린다.

장애인 실업팀 ‘창단 비용’ 지원

체육회, 지원사업 공모...내년 2월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는 2012년 2월 29일까지 ‘2012년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비장애인스포츠 실업팀, 기존 장애인실업팀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8억원이 분산 지원될 예정이다.

신규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2억원 이내에서 창단비용의 50%를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비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은 채용선수 개인별로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게 된다.

또한 기존 장애인스포츠 실업팀과 장애인선수를 채용한 비장애인실업팀에는 팀당 2000만원

이내에서 운영비가 지원된다.

지원사업 공모참가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 8부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부(0707-422-0078)나 홈페이지(<http://www.kos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도가니’ 감독 “장애아 부모에 죄송”



영화 ‘도가니’의 황동혁 감독이 한국장애인인권상 위원회상 인권매체 부문을 수상하고, 소감을 전하고 있다.

황동혁 감독은 12월 2일(금)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여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황 감독은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보려면 자막이 가장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자막을 상영하는 한국영화는 거의 없다. ‘도가니’도 자막상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자막상영은) 극장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황 감독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황 감독은 “도가니 파장을 겪으면서 내가 영화하는 동안에 꼭 좋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어떤 영화로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영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北, 런던올림픽 참가 추진

국제장애인올림픽위 가입 진행중

북한이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의 참가를 목표로 최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12월 3일(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작년 1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발족한 조선장애자체

육협회가 국제장애인올림픽위 가입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협회는 장애자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민족협회, 해외교포단체들과 장애자 체육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사명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난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장애자올림픽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국

제장애자올림픽위 가입을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국가적 차원에서 2012년 런던장애자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되는 국제장애자올림픽위 총회에서 기구 가입 수속을 완료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의 ‘탁구여왕’ 출신인 이분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은 IPC 가입 시 내년 런던장애자올림픽에서 북한의 장애인 선수들이 첫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새보람 요양 병원

SAEBORAM HOSPITAL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새보람요양병원은 도심속에서도 자연친화적인
병실환경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안겨주는 재활요양치료
전문병원입니다.

대표전화
02.3492.7888

내과

신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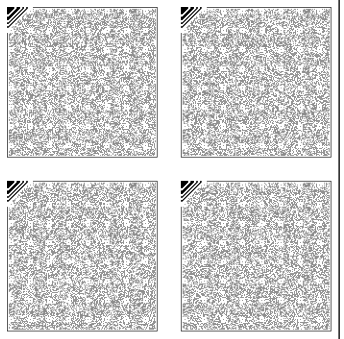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1년 신묘년(辛卯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장애등급재심사, 영화 ‘도가니’로 드러난 장애인시설의 인권유린, 장애인 체육회 사태 등의 이슈로 점철된 올해도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에게도 올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장애인예술제 등 큰 규모의 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새보람요양병원 개원,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중국·베트남장애인단체와 교류하며 국외로 외연을 넓히는 한편,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본지는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 용의 해를 맞아, 지장협의 웅혼(雄渾)한 기상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기를 기원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지장협 올 한해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려 한다. <편집자 주>

2011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활동 REVIEW

<1월>

■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지도자대회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협회 지도자들과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희망찬 2011년을 기원하는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의 전국 지도자들이 새해를 맞아 교류하고 협회 및 장애인 복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한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이하 대회)」가 1월 20일부터 21까지 1박 2일간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 김정록 중앙회장, 장충련 ‘제7대 상임대표’로 선출

김정록 중앙회장이 1월 6일(목)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열린 「2011년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정기총회」를 통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제7대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 중국 河北省殘疾人聯合會 중앙회 방문



협회를 방문한 河北省殘疾人聯合會 임원진과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 河北省殘疾人聯合會(하북성잔질인연합회, 이하 연합회)의 임원진이 1월 28일 협회를 방문, 양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2월>

■ 제10기 시·군·구 지회장 리더쉽 교육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대표해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의 선봉장이 될 ‘제10기 시·군·구지회장’들의 역량과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10기 시·군·구지회장 리더쉽 교육’이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대전 유성에 소재한 레전드호텔에서 열렸다.

<3월>

■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지장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협회, 지회 및 산하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3월 25일(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1년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

3월 28일(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10년도 사업보고’, ‘2010년도 감사보고’, ‘정관 개정(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4월>

■ 2011 장애인 취업 전 교육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2011년도 장애인 취업 전 교육’이 4월 6일(수) 여성프라자(서울신길) 4층 아트컬리지에서 개최하며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에티켓 등을 장애인구직자들에게 교육했다.

■ 김정록 중앙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김정록 중앙회장이 4월 20일(수)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애단체, 정(政)·학(學)계, 기업체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4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원희목(한

나라당), 국회의원 정하균(미래희망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4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모습.

<5월>

■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5월 8일 오전 8시 잠실 올림픽종합경기장 앞에서 개최된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의 폴코스 선수들이 42.195km의 레이스를 힘차게 시작하고 있다.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하는 국제공인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5월 8일 1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 결과 스위스의 마르셀 후크(Marcel Hug, 25세) 선수가 폴코스 부문의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한국 장애인육상의 간판스타 홍석만 선수(36, 제주도청)는 1시간 27분 4초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 ‘새로운 한국 기록’을 세우는 쾌거를 달성했다.

■ 연금공단과 ‘사회공헌협약’ 체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여행’ 또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협약(MOU)』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과 5월 25일(수) 체결했다.



김정록 중앙회장과 전광우 이사장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월>

■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모습.

장애인들의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이하 예술제)'를 6월 3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7월>

■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 발족

전국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장애인인권위원회'이 전국적으로 발족했다.

■ 베트남장애인협회 방문

베트남장애인총협회 임직원들이 7월 27일 협회를 방문, 김정록 중앙회장과 면담을 가지며 상호교류를 약속했다.

<8월>

■ 장애인전문요양병원 '새보람요양병원' 개원



8월 30일 개최된 '새보람요양병원'의 개원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개원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국내 장애인단체 중 최초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전문요양병원 '새보람요양병원(원장 한원호)'이 8월 30일(화) 오후 2시 병원 앞에서 개원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도 워크숍 참석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뉴델리 타이궁전호텔에서 열린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준비를 위한 지역 워크숍'에 김정록 중앙회장 등이 참가,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9월>

■ 휠체어마라톤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의 유공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9월 5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

국내최대규모의 장애인시설을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와 산하 시설 간 교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법인이사장배 제3회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를 9월 24일 정읍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 2011 전국장애인단체활동가대회

'감성, Wake up!(초심의 감성을 기억하기)'를 주제로 장애인 인권·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을 위해 '2011 전국장애인단체활동가대회(이하 대회)'를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에서 개최했다.

<10월>

■ 2011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10월 7일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목동주경기장에서 열린 「2011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서 만여명의 회원들이 경기를 가득 메운 모습.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단체인 지장협의 전국 임직원 및 회원 간의 상호 화합을 위한 「2011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목동주경기장에서 개최했다.

■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

전국의 지장협 산하 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별 운영발전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1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를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대명리조트에서 개최했다.

■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전국의 모범장애인배우자를 초청해 위로하여 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1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를 10월 1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했다.

대회의 최고상인 '장한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남편, 아들이 악성 림프종양

을 앓고 있는 고난에도 이겨내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낸 신명자(여, 46세)씨가 차지했다.

■ 2011 취업자 간담회

장애인취업자와 협회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8일(금) 광화문 고려삼계탕에서 '2011년 취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11월>

■ 제11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2011년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열린 『제11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모습.

'2011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11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11월 11일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aT센터에서 개최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장애인 복지를 넘어, 장애인 누구나 희망을 마음에 품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장애인복지'를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 막중한 대업(大業)을 지장협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장애인 맞선 이벤트, 솔로탈출 119

성인 남녀장애인들에게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솔로탈출 119'를 11월 26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12월>

■ 제8기 시·도협회장 및 사무처장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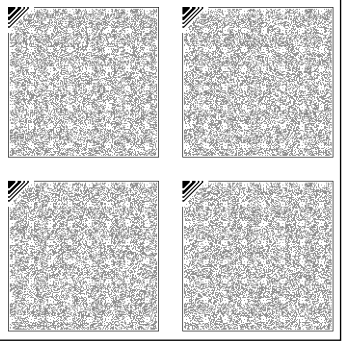


김정록 중앙회장과 전국 16개 시·도협회장 및 사무처장들이 '제8기 시·도협회장 및 사무처장 워크숍'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를 이끌어 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기 시·도협회장을 11월 말 임명, 1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도협회장 및 사무처장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8기 시·도협회장 및 사무처장 워크숍'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구 GS프라자에서 개최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지난 11월 26일(토) 이룸센터에서 결혼을 희망하는 전국의 성인장애인을 위해 개최한 '제4회 장애인 맞선 이벤트-솔로탈출119' 행사 모습.

장애인 맞선 이벤트 '솔로탈출 119'

11월 26일 이룸센터...총 5쌍의 장애인 커플 탄생

장애인을 위한 전문 미팅프로그램인 '솔로탈출 119'를 통해 5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11월 26일(토)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성인 장애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미팅프로그램인 '제4회 장애인 맞선 이벤트-솔로탈출119'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결혼할 의사가 있는 전국의 장애인 30여명(비장애인 2명 포함)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행사 초반에는 다소 서먹해했지만, 미팅프로그램 전문 MC의 노련한 진행과 자원봉사단 '만남'의 노력으로 조성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점심식사,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커플선정'을 통해 백창호(남, 37세, 지체2급)씨와 전정현(여, 33세, 뇌병변3급) 커플, 구본섭(남, 37세, 지체3급)·김예중(여, 28세, 지적3급), 서무권(남, 27세, 청각4급)·박진희(여, 27, 지적3급), 김철구(남, 40세, 지체2급)·황석인(여, 44세, 뇌병변5급), 양현모(남, 32세, 지체2급)·한선미(여, 38세, 비장애)씨 커플 이상 5커플이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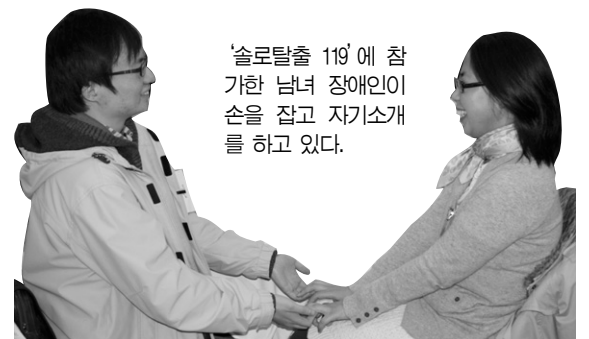
이날 첫 번째 커플로 선정된 백창호·전정현 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내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를 주최한 지장협은 "오늘 커플로 선정된 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이재복 대리는 "진행 초기에는 다소 경직돼있던 장애인들과의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 뜨겁고 순수한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춘희 여성정책팀장은 "이동과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결혼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히며 "오늘의 행사를 통해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결혼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장협은 결혼의 의사가 있는 성인 남녀 장애인(20세 이상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배우자 선택의 기회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미팅프로그램인 '솔로탈출 119'를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솔로탈출 119'에 참가한 남녀 장애인이 손을 잡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던 '커플매칭'.



참가자들이 풍선돌리기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각조 대표들이 무대로 나와 자신이 속한 조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조 대표들이 무대로 나와 자신이 속한 조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솔로탈출 119'의 첫 커플로 탄생한 백창호씨와 전정현씨.



이날 행사를 통해 탄생한 5쌍의 커플.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 자원봉사자, 행사담당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1년 새보람 독자만족도 설문조사

SAEBORAM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용태)는 10월 7일(수) 서울 양천구 소재의 목동수경리장에서 '2011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최대 장애인행사인 지장협의 전국 임직원 및 회원 간의 상호 화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회로, 전국 16개 시도 협회 임직원 및 회원, 자원봉사자, 친척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2011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2011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2011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유일의 무료장애인신문인 '새보람'은 급변하는 장애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생생한 독자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제작 및 운영에 반영코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조사 기간 : 2011년 12월 20일(화) ~ 2011년 12월 28일(수)
- 설문 방법 :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 공지사항
- 조사 내용 : 새보람 인지 여부, 만족도, 개선방향
- 제출 방법 : 설문 완료 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전송
(이메일 hambaknun30@nate.com, FAX 02-796-4281)
- 경 품 : 문화상품권, 천연비누
- 당첨발표 : 2011년 12월 30일(금)

※ 문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이현일

☎ 02) 2289-4381

since 1986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은행 · 주민센터 · 체육시설 등 편의제공 ‘외면’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드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3주년. 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준은 열악한 상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29일(화) 이룸센터에서 발표한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 101명, 비장애인 71명 등 총 182명으로 구성된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영역은 금융 서비스,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등 총 4가지다.

■금융서비스 영역의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이 열악했다.

전국 10개 은행 총 186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항목에서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등을 제공한 은행 지점은 7곳(4%)으로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뱅킹 업무 처리’는 132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9일 이룸센터에서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 모니터링 사업의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 ©에이블뉴스

지점 중 10곳(8%)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점자 보안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 은행지점도 113곳(61%)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지속적인 개선과 주의를 요구하고,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스정류장에서의 편의제공

전국 13개 지역 총 324개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버스정류장 대기시설에 확대문자나 점자안내, 음성정보 등의 편의가 제공되는 곳은 40곳(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24개 버스정류장 중 101개(48.6%)만 버스정보 안내기에서 저상버스 유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장차법’과 ‘이동편의증진법’상 버스 정류장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에서의 편의제공

전국 13개 지역의 주민센터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센터 182곳 중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를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비치한 곳은 60.4%인 131곳에 불과했다. 또한 137곳 중 109곳(79.6%)만 대독 등을 위한 보조 인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주민센터 182곳 중 청각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나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는 곳은 95곳(57.1%) 뿐이었다. 130곳 중 94곳만 필담 등을 위한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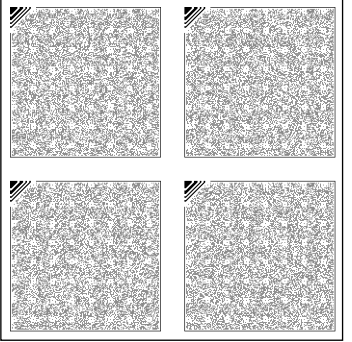
인권위는 “‘(가칭)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및 사례’ 등을 검토해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장차법 상의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편의가 예산상의 이유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회, 예산담당부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편의제공

전국 13개 지역 총 130개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수준이 낮았다.

84곳의 문화·예술 기관 중 40곳(47.6%)이 장애인의 문화·

소리로 읽는 새보람



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를 외면하고 있었다. 특히 80곳(95.2%)은 장애인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점자안내책자나 보이스ای이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시설의 경우 44곳 중 1곳(2.3%)만 체육활동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점자안내책자나 보이스ای이 삽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체육시설은 46곳 중 23곳(50%) 밖에 되지 않았고, 이중 장애인 보조 경험이 있는 사람은 46.9%에 불과했다.

체육시설은 46곳 중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는 곳은 거의 ‘전무’에 가까웠다.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제공 2곳(4.3%), 지체장애인 프로그램 1곳(2.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중 인적서비스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력과 체육활동 보조인력에 대한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효과 ‘글쎄’

허복옥 활동가, 장애 특수성 인정 어려워

장애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허복옥 활동가는 지난 11월 28일(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토론회에서 “장애를 항거불능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문구가 삭제되고 ‘폭행, 협박으로 강간 등을 하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준강간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정되면서 오히려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인정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무부는 정부입법으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항거불능’ 규정을 폐지한 개정안을 마련, 공포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특례법 6조의 ‘항거불능’ 조문 삭제와 장애인 성폭력 유사성고행위 인정,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강화 및 시설 내 성폭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6조 1항은 범죄피해자 집단으로 장애인만을 별도로 상정한 채 형법 상 강

간죄(297조)를 그대로 도입했으며, ‘항거불능’ 조문을 삭제했다. 6조 5항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중 기존 형법 심신미약자간음죄(302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수단인 ‘위계 및 위력’을 도입했다.

허 활동가는 “국회는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법을 개정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유사강간 등 그 유형을 세분화하고 친고죄를 폐지했으며, 형량도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등 개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적으로 부정하긴 어렵다”며



11월 28일 진행된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토론회’. ©에이블뉴스

“하지만 더욱이 강화된 형량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더 까다롭게 판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동성폭력이 벌어지면 아동생존자 대책, 장애인성폭력이 벌어지면 장애인생존자 대책에 집중하며 근시안적 대책만 쏟아내는 국가에 대해 성폭력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친고죄와 공소시효 폐지를

일반 강간의 경우에도 확장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수석검사는 “그 구성 요건상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애인 성폭력을 인정할 여지가 매우 ‘협소’해졌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에이블뉴스〉

더 큰 꿈을 위해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 훈련생이 원하는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기업에서 인정받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개인특성별, 전문기능별 맞춤훈련과 특성화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분야

전자, 정보기술, 디자인, CAD/CAM(기계), 공예, 인쇄매체, 외식산업, 의상, 건축
특화[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 지적(자폐성포함)훈련]

모집 및 선발

기간 : 연중수시
대상 :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입학상담

입학상담문의(대표전화) : 1588-1519
교육훈련비, 기숙사, 식비 무료제공, 훈련준비금 및 해당자 훈련수당 지급

직업능력개발원	분야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일산직업능력개발원	기계, 전자, 인쇄매체, 디자인, 공예, 정보기술, 특화훈련(청각, 시각, 지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 031)910-0800
부산직업능력개발원	기계, 디자인, 전자, 건축, 외식산업 특화훈련(청각, 정신장애, 뇌병변, 지적)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 051)726-0321
대구직업능력개발원	기계, 전자, 의상, 정보기술 특화훈련(청각, 시각, 지적)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 053)550-6000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전자, 디자인, 외식산업, 정보기술 특화훈련(청각, 정신장애, 지적)	대전 대덕구 신일동 소재 ☎ 042)366-5412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기계, 디자인, 정보기술 특화훈련(청각, 뇌병변, 지적)	전남 함평군 함평읍 소재 ☎ 061)320-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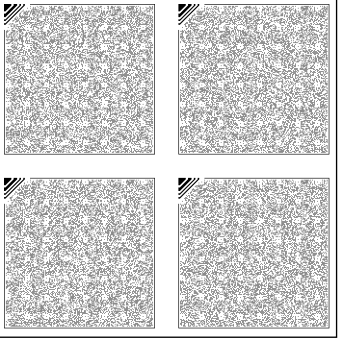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리로 읽는 새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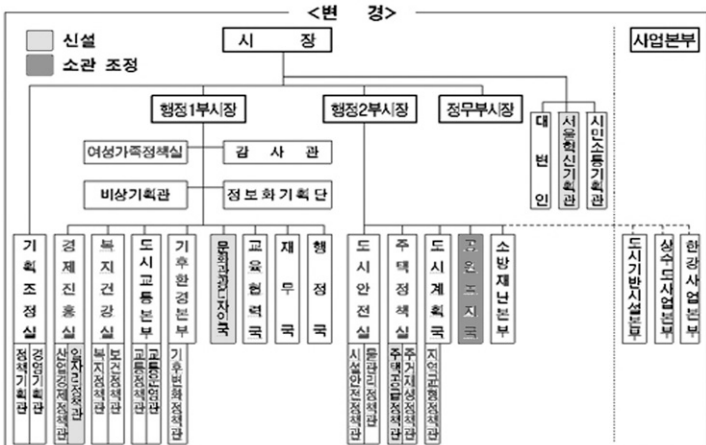
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이 마련된다. 이중 '사회혁신담당관'은 사회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사회적약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의 공포시기인 내년도 1월 1일자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에이블뉴스〉

서울, 복지건강본부→복지건강실로 강화

5실 3본부 6국 체제로 개편... '희망복지지원과' 신설



서울시의희망서울 정책실천을 위한 조직개편안 '조직도.'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2·3급인 복지건강본부가 1급기구인 '복지건강실'로 강화되고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을 위해 '희망복지지원과'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12월 1일(목) 행정

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희망서울 정책실천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기구는 기존 '1실 8본부 5국' 체제에서 '5실 3본부 6국' 체제로 개편된다. 기존 복지건강본부와 경제진흥본부, 도시안전본부, 주택본부를 복지건강실, 경제진흥실,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로 개편해 기존 기획조정실과 함께 5실 체제로 전환해 전면 배치된다.

또한 도시교통본부, 소방재난본부, 기후환경본부는 현행 본부제를 유지하며 문화관광디자인

본부는 '문화관광디자인국'으로 조정된다. 이중 '복지건강본부'는 복지안전망 강화 등 희망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복지건강실'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분야 전담 기획관(일자리정책관)'이 설치되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적극적인 발굴육성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과'가 신설된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 시장 주요 갈등의 조정 사회혁신 전파 확산을 위해 시장직속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을 두고 산하 전담부서로는 '마을공

인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박차

인천시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1월 24일(목)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이하 BF)'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

하는 한편, 건축문화 발전과 친화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가 교통시설과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LH공

사가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천은 BF 인증을 받은 건물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도시다. 전국적으로 140개 건물이 BF 인증을 받았으며, 인천에서는 어린이과학관과 송도컨벤시아 등 36개 건물(예비인증 포함)이 BF 인증을 받았다.

충북, 내년부터 '복지통합플라자' 운영

내년부터 충청북도 도내 12개 시·군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한 자리에서 여러가지 복지 서비스를 받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난 12월 3일(토) 충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 긴급지원, 무료 도배 등의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 도내 12개 시·군이 내년부터 '5일 장터' 등에서 '복지통합플라자'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공

공기관,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푸드뱅크' 등이 참여하는 복지통합플라자에서는 이 외에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전시·판매되고 기업체나 도민이 기부한 식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부산 해운대, 장애인인권보장 조례 제정

부산 해운대구의의회가 이른바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인권조례에는 '구청장에게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모든 차별 미지 인권침해를 방지하

고 이를 구제할 책무를 부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 및 교육'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 단체와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 광주순환도로 이용료 무료 추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 약자 이동 지원차량의 광주순환도로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2 순환도로 3개 구간의 통행료 징수구간에 장애인 등록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업무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나마 실효성 있는 혜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안양, 보장구수리센터 개소...본격 운영



안양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지난 16일 개소식을 가졌다. ©안양시장애인지립생활센터

안양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지난 11월 16일(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용 대상은 안양시 거주 장애인으로 전동·수동휠체어 바퀴 펑크, 부품 지참한 교체작업 등은 무상으로 이뤄진다.

보장구 수리비용이 4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초과 금액에 따라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10%, 일반계층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건강보험증 사본과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해당 경우)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444-8119)나 이메일(aycil@korea.com) 홈페이지(www.aycil.co.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춘천, 내년 ‘세계휠체어컬링대회’ 개최



휠체어컬링 경기 모습.

세계 장애인 동계스포츠 대회 권대회’가 내년 2월 춘천시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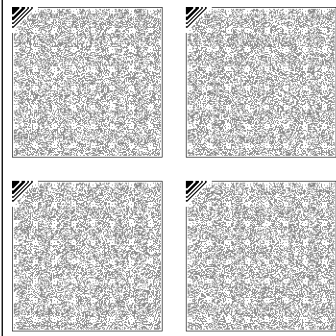
2012년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송암스포츠타운 의암빙상장에서 열리는 본 대회는 2002년 스위스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또한 장애인 동계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회에는 2011 체코 프라하대회 상위 8개국 등 10개국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지난 대회에서 6위를 차지한 한국대표팀도 정상에 도전한다는 각오다.

춘천시의 한 관계자는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라며 “컬링에 관심이 높은 해외 국가에 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어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경북,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총력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 이하 도)는 다가오는 2012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지난 12월 13일(화)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12년 67억원을 투입, 주차단속 보조요원과 환경도우미, 건강도우미, 공공기관 행정도우미로 장애인을 채용해 2천여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마

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의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 시상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편지를 보내거나 방문해 취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북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기로 했다.

김해, ‘무장애도시’ 건설에 박차

내년부터 공공시설물에 ‘BF’ 적용

경남 김해시는 장벽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시가 건설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이하 BF)’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BF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

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한다.

김해시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설계지침서를 제작해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공공시설 건축 관계 부서에

배포하고 향후 공공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시 반영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장애·비장애인이 모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BF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해운대, ‘장애인인권보장 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가 이른바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의회는 장애인인권 조례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인권조례에는 ‘구청장에게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모든 차별 미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구제할 책무를 부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 및 교육’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 단체와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울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

성폭력피해자 치료·수사 등 원스톱 지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12월 14일 울산병원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호윤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울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지난 12월 14일(수) 오후 3시 울산병원 해명심의료재단 울

산병원에서 정식으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아동과 여성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 치료와 피해자 긴급지원 및 수사기능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피해자와 가족은 센터 내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 의료인에 의한 진료, 여성 경찰관에 의한 피자 진술조서 작성 및 법률상담 등을 365일, 24시간 지원받게 된다.

울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울산병원 본관 8층에 설치됐으며 상담실, 안정실, 심리치료실, 진술녹화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국에는 현재 울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포함해 부산, 강원영동, 전남, 서울, 경북 등 총 6개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마련돼 있다.

제주,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장애인 차량 1765대 13여억원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올해 다자녀·장애인 등록 차량 1765대에 대해 취득세 13억 2200만원을 감면했다고 지난 12월 1일(목)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생업 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도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가구 세제지원은 2009년 1월1일 취득세를 50% 감면한 이후 지난해 7월5일부터는 100%로 확대됐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시행 첫 해인 2009년 206대·1억400만원, 지난해 336대·1억8300만원, 올해 현재 838대·7억700만원이다.

칼럼

20번째 생일, 세계장애인의 날 의미



‘12월 3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1992년 처음 세계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졌으니까 올해로 정확하게 20번째 맞는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내면서 청년 20세가 된 세계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원래 세계장애인의 날은 UN

이 정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장애인의 날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 제정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UN은 1975년 장애인 권리 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76년에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만들자’고 선포하고, 1981년 전 세계가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키게 됐습니다.

실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서는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구호와 함께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복지후발국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에 1983년~1992년까지를 ‘세계장애인의 10년’ 즉, ‘Rehabilitation Decade(재활 10년)’이라 선포하고 지키면서 1992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

인의 날로 지킬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제정·선포하고,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도록 한 것에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씩 세계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한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경이나 이념을 초월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안전한 참여와 사회 통합을 위해 공동으로 세계인이 노력하자’는 큰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장애인의 날은 여전히 산적돼 있는 장애 장벽을 제거시키고 해결하는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은 여전히 지금도 유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과 편견 문제가 여전히 산적돼 있습니다. 또 장애 인식으로 대별

되는 태도의 장벽은 남아 있습니다. 전문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의사소통 장벽 문제도 있습니다. 여전히 건축물의 장벽, 접근성의 장벽, 환경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날이 바로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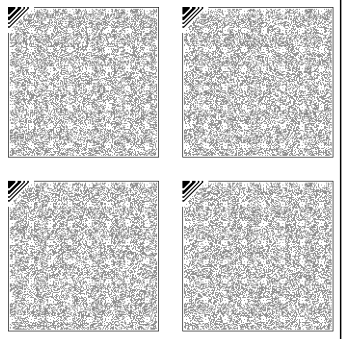
장애인의 보육에서부터 의료, 심리, 교육, 직업재활을 통해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경제·정치적 권리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나라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깨닫게 하는 날이 바로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UN은 2006년 세계장애인권리협약을 새롭게 내놓고 각 나라마다 비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UN장애인

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올 초에 실행계획서를 UN에 새로이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84개국이 이미 권리협약에 서명하고 동참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번째 맞이하는 이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피부색이나 종족, 나라는 다르지만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고유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세계인 모두는 세계장애인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재활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다시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세계를 건설해나가야 하는 날이 바로 ‘세계장애인의 날’의 의미가 아닌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독자기고

권성은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주단기보호팀)

“세렌디피티(Serendipity - 뜻밖의 고마운 선물)”

이 곳 성남장애인복지관에 들어 온지도 어느덧 10년!

9명의 이용자들과 오늘도 하나씩 추억을 만들어 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이용자들과 만나고 헤어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에 들어와 처음 만났던 유치원생의 이용자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이가 아닌 어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곳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었다는 뜻이겠지요.

같은 복지관, 같은 팀, 같은 자리에서의 10년…….

어떻게 생각하면 길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가 다른 이용자들과 생활하면서 그 시간이 지루하고 길다고 느껴 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지만 어른이길 거부하는, 피터 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주간보호 이용자들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주간보호 이용자들은 항상 변함없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개성이 뚜렷한 여러 이용자들의 각기 다른 모습들이 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20살을 훌쩍 넘긴 어른들이지만 아직은 도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주간보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주간보호 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입니다.

보호자 동반 없이는 외출이 어렵고 식사, 의복 착·탈의,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으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저를 깜짝 놀랄게 합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찾기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발견하고 훈련시켜 이용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들을 하나씩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반 9명의 이용자들에게 제가 해 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마음과,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믿는 순수함,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솔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배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 - 뜻밖의 고마운 선물)’라는 말처럼 이용자들과 저의 만남이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독자수기

본지에 게재된 수기는 지난 2011년 10월 19일(수)과 20일(목)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11 전국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김기택(66세, 남) 씨의 수기로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의 의욕'이 가득 담긴 이야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그리고 다시 봄”



2011년 10월 1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2011 전국중증장애인 배우자초청대회』에서 김기택 씨가 '아름다운 배우자상'을 수상하고 있다.

벌써 서른하나라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1972년 결혼을 한 우리 부부에게 결혼하지 꼭 10년째가 되던 해의 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나는 가끔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느 지점까지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른하나라 된 딸아이는 늘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시기인지 말하려다 보면 허끝이 까슬까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이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는, 아니 우리 부부는 행복한 가을을 보내고 긴 겨울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첫아이

“절에 다녀올게요”. 어느 날인가부터 교회에 다니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불공을 드린 다음 절에 가려고 짐을 싸곤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한 두해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는 덜컥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아이를 갈구하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편도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을 절개하고 수술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다시는 아내가 아프지 않게 지켜야겠다고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다짐했

었습니다. 일 년을 그렇게 아프고, 하늘이 도왔는지 아내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기적처럼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10년 만에 꿈같이 찾아온 아이를 키우느라, 우리 부부는 일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농사 대신 비닐 하우스를 짓고 참외농사를 시작했으며 아이가 걷기 시작하자, 다시 담배농사를 재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시작으로 또 다른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만 같은 믿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의 이름에 이를 ‘승(承)’자를 넣어서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첫 아이에 이어 작은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때 내 나이 마흔 일곱, 아내는 마흔 넷이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신경성으로 늘 두통을 달고 살던 아내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함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또 아이를 낳아 키워주는 아내를 보면서 비로소 ‘가족’을 느꼈습니다. 나의 ‘가족’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 뿌듯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행복’은 꼭 10년 동안 우리 곁에 머물렀

습니다.

1999년은 우리의 첫 아이가 수능을 보던 해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나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기 위한 그 순간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무뎠던 내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상냥하고 정이 많던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이가 수능을 보는 건지, 아내가 수능을 보는 건지 그 마음 떨림을 곁에서 지켜보기가 못내 안쓰러웠지만, 나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을이, 우리 가족의 가을이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해 한파가 갑자기 찾아온 수능을 보던 날, 아내는 달린 교문 밖에서 하루 종일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긴 싸움을 끝낸 아이가 교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벅찬 감동을 느끼며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불고기를 먹으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잠시만 눕겠다고 했습니다. 오랜 피로감으로 잠시 누워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쉬도록 했습니다. 고기를 다 먹을 때 까지도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119가 집에 왔고 급한 마음에 공주의료원에 갔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신경과 의사는 이 말 한 마디를 차갑게 뱉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긴 겨울의 시작

그날이 긴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도록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한 두 달이라고 했지만, 나는 아내를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한 그 긴 세월동안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붙들고 싶은 간절함으로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성탄절 즈음, 아

내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학교에 다니느라 병원에 함께 있지 못한 아이들이 네 번째 찾아온 그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눈을 떴지만. 어딘가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내는 일어나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간신히 조금씩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기나긴 시간들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뇌병변 장애 1급’이라는 판정만 내려졌습니다. 긴 잠에 빠질 무렵, 아내의 왼쪽 뇌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른손과, 오른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들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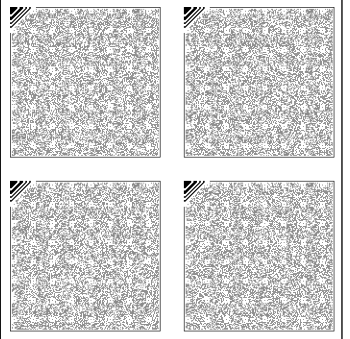
새 천년이 시작된다고 떠들썩하던 그해 봄, 아내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언어치료와 재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발달장애 어린아이들 속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처음에는 기가 막혔지만, 조금씩 굳어버린 혀를 움직일 수 있는 아내를 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10년마다 찾아온 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도 고마운 내 아이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아이는 서울로 가고 싶다는 꿈을 접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해 서산에 자리를 잡으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작은 아이를 데려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많은 딸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선뜻 동생을 데려가서 함께 생활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닌 척 했지만, 혼자서 몸이 불편한 아내와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든 아들 녀석을 감당하게엔 내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소리로 읽는 새보람



본 자식들이지만, 말쑥 한 번 부리지 않고 든든하게 곁에 있어주어 늘 대견한 자식들입니다.

지금은 군대에 다녀왔지만 당시 열 살이었던 아들 녀석이 감당하기에는 엄마의 아픔도, 아버지의 걱정도, 누나의 좌절감도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아픔으로 온 가족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가 되었던 순간들은,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사랑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무엇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에게 시집을 와 준 아내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봄’이었다면,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들이 아내와 나의 ‘여름’이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삶을 차곡차곡 준비해가던 시절은 우리에게겐 행복한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쓰러져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한 채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간 것은, 그것은 아주 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요즘 ‘봄’을 다시 느낍니다. 아내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지 않고, 또 다른 인연들 속에서 행복해 하기 때문입니다.

전 얼마전 장애인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점심을 먹을 때 건네지는, 그 따뜻한 눈빛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 곳 사람들의 손길 덕분에 아내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늘 아내의 곁에서 아내만 바라보며 살던 나에게도 장애인협회 사람들은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가 되어버린 아내에게는 마음껏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입 밖으로 내 보지 못했던 말 “사랑해, 여보”를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 그리고 기적처럼 제게 다시 허락된 ‘봄’의 행복을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느끼고 싶습니다. <글>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최수종 · 하희라, 화상환아 위해 출연료 기부 3천만원 기부...“앞으로도 계속할 것”



최수종 · 하희라 부부와 하트하트재단 신인숙 이사장(사진 좌측부터)이 '화상환아지원 기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하트하트재단

연예계 잉꼬부부 최수종 · 하희라 씨가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신인숙)에 KBS 1TV '아름다운 사람들' 프로그램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다.

최수종 · 하희라 씨는 지난 11월 28일 (월) 오후 3시 재단 사무실을 방문, '화상환아를 위해 써 달라'며 신인숙 이사장

에게 기부증서를 전달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부터 주변에 숨어있는 미담, 선행의 주인공을 발굴해 소개하는 프로그램 KBS 1TV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내레이터(줄거리나 장면의 내용을 해설하는 사람)로 활동하고 있다. 하트하트재단은 최수종 · 하희라 부부가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기관이다.

기부액은 3천만원이며 최 씨는 “이번 출연료 기부는 하희라 씨의 지혜에서 나왔다”며 “이 지혜가 더욱 큰 사랑으로 성장해 소중한 곳에 쓰이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트하트재단은 지난 1988년 설립된 이래 가난과 장애, 질병으로 소외된 국내외 아동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기업은행이 기부자와 기부 대상을 연결해주는 중계 사이트를 개설했다.

기업銀, 기부 중계 사이트 오픈

기부자 · 대상 연결...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기업은행(행장 조준희)은 기부자와 기부 대상을 연결해주는 기부 중계 사이트 '참! 좋은 기부' (give.ibk.co.kr)를 오픈했다고 12월 5일(월) 밝혔다.

이 사이트는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 대상과 방법을 찾지 못해 실전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부 대상 기관들의 현황을 소개하고 기부 방식을 안내해주는 곳이다.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이트 내에서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기부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된 기부기관

을 골라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또 사이트 이용 실적과 소셜네트워크(SNS)와 연동한 활동 내용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기부아이템(Wing)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참! 좋은 기부 사이트' 오픈을 기념해, 회원가입 시 5000 Wing을 주고,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2를 나눠주는 경품행사도 진행키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 · 도 협회와 232개 시 · 군 · 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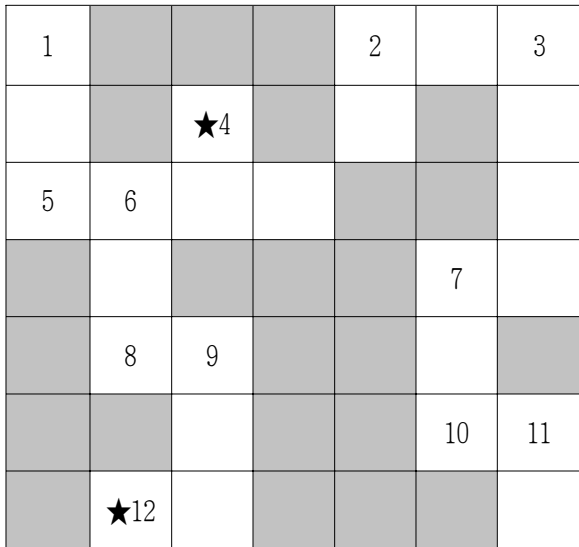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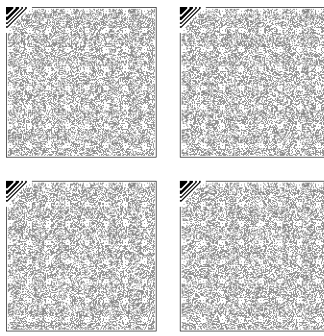
■ 2011년 11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시연, 강지민, 고인철, 곽은영, 김구환, 김이화, 김정빈, 김정태, 김진호, 김태우, 김행우, 김환경, 남용원, 민속박물관 박경일,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선병욱, 송호율, 유재복, 윤주석, 윤채환, 이상돈, 이은정, 이태훈, 임채중, 정다운, 정선용,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인준, 최재훈, 최준량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난호 정답

1★진			2★무			
뚫			3당	4구		
5개	6그	맨		7제	주	8도
	리					자
	9스	10타			11용	기
		악				
		12기	상	청		

당첨자

11월호 정답

무진

이명신 서울 성북구 장위2동
김우진 전남 강진군 강진읍
정현주 인천 서구 가좌동

| 가로열쇠 |

- 개별 주식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가격.
-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는 뜻으로,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었을 이르는 말.
- 검도, 태권도 따위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기구.
-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열대 과일로 말레이반도, 미얀마, 인도 북부가 원산이다. 열매는 핵과(核果)로서 5~10월에 익으며 넓은 달걀 모양이고 길이 3~25cm, 나비 1.5~10cm인데, 품종마다 차이가 크다.
- 몰래 사람을 죽임.
- 박경리의 장편대하소설.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

| 세로열쇠 |

- 함경도와 만주 사이에 있는 산. 높이는 2,744미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 음양오행설에서, 금(金)은 수(水)와, 수는 목(木)과, 목은 화(火)와, 화는 토(土)와, 토는 금(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
-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 노래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
- 컴퓨터로 연결되는 통신 조직망.
- 본명은 호광옹(胡光壘). 청나라 말기 대상인이다. 권력의 흐름을 타면서 남다른 지략을 발휘해 거부가 됐으며 “사업가는 모름지기 칼날에 묻은 피를 핏을 수 있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 대한민국의 주거 시설 가운데 한 형태. 원래 각종 고시 및 시험을 준비하는 장기 수험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이나, 수험생 이외의 사람들도 비용이 다른 주거 시설보다 싼 까닭에 많이 찾고 있다.
- 쿠바의 리듬에 로큰롤, 솔, 재즈 따위를 혼합한 활기에 넘치는 라틴 음악. 1975년 후반부터 푸에르토리코에서 시작하여 널리 유행하였다. ○○댄스.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10월 28일(금) 육군사관학교 화랑운동장에서 열린 『2011 서울특별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의 행사 모습.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을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해를 맞이하며

2011년 한 해 동안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그 어떤 순간에도 협회를 믿고 지지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던져 주신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 격려, 질책 그리고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가오는 2012년, 회원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 정 록**

